

나주, UAE 두바이 농특산물 수출길 열었다

두바이 유통업체와 100만 달러 규모 수출 협약 aT두바이지사 방문...나주 배 등 수출 판로 모색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에서 맛을 인정받은 나주배가 조만간 두바이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유통업체 나주시장이 이끄는 'UAE농산물 수출 개척 방문단'이 지난 14일 출국해 2박4일 일정으로 현지에서 나주 농특산물 수출 판촉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방문단 활동 기간 윤 시장은 지난 15일 두바이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 (천사마트)와 100만달러(12억8000만원)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방문단에는 나주배원에 농협, 곱든원, 원도물산, 가보팜스 대표, 시의원, 나주시 유통행정팀 직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방문 기간 윤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병중 총영사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판로 확보 할

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UAE와 접충교역 진여 비용을 나주배(2000만원 어치)로 대신 지급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나주배를 전달 받은 UAE왕족은 맛에 반해 인근 오만 왕족에게 배를 선물했고 오만 왕족도 맛에 반해 추가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 비전을 선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 과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UAE왕실에서 명품 나주배를 맛볼 수 있도록 8월 조성중 배를 총영사관을 통해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주배가 UAE왕실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가져온 신고배 5상자를 총영



사관을 통해 왕실에 전달토록 요청했다. 윤 시장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두바이 해외지사서 UAE 대형 유통업체인 '유니언 콕'(Union Coop) 구매 담당자, 바이어 등과 농산물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한 상담회를 주재했다. 윤 시장은 김현 aT두바이 지사장에게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활발 축산물 수출을 위한 다국가 사례, 할랄 인증 도축장 등의 설명 듣고 나주 한우와 연계한 중동시장 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과 방문단은 aT가 지원·운영하는 한국산 신선 농식품 홍보관인 'K-Fresh zone'을 방문해 나주 농·특산물 현지 홍보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도 진행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수출 능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신안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 인생샷 스탬프 챌린지 진행

신안군은 수국정원과 환상의 정원으로 유명한 도초도에서 '섬 수국축제' 기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배로 가는 섬 수국축제 인생샷 스탬프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누적 내려받기 수 2,000만 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600만 명에 이르는 넷지웹스케어가 운영하는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의 B2B·B2G 플랫폼 '타임워크'에서 진행된다. 보상 방법은 주요 지점을 걷고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인증하는 스탬프 챌린지 보상, 스탬프 코스에서 인생샷 인증 보상, 스탬프 1개 이상 획득하고 쓰레기 주는 사진 인증 보상과 신안군 관내 소비 영수증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캐시워크 앱을 설치

후 주화면 타임워크에 접속해 신안군 인생샷 스탬프 챌린지로 참여하면 된다. 스탬프 챌린지는 축제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스탬프 장소는 천사대교, 비금 하트해변, 도초 환상의 정원과 수국정원 등 10 곳이다. 10곳 중 1곳이라도 방문한 모든 참가자에게 챌린지 종료 후 캐시를 배당하며, 인증사진과 함께 많은 곳을 방문할수록 더 많은 캐시를 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캐시워크 챌린지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섬 수국축제 기간에 '모범도시섬' 인증을 받은 '환상의 정원(나무 10리길)'과 핫플레이스도 함께 방문해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애 기자

강진,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교실 운영

"치매가 있어도 걱정 없는 안심마을 조성"

강진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치매안심마을인 도암면 만년마을, 강진을 목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일상이 가능하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마을이다. 치매 예방 교실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치매 예방 교육 및 운동, 원예·공예·연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

로그래프 전·후 치매선별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유소견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등 치매 사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뤄진다. 강진군보건소는 도암면 만년마을을 2019년 4월 치매안심마을 1호로, 강진을 목리마을을 2022년 9월 치매안심마을 2호로 지정한 바 있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치매환자와 가족, 나아가 이웃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광양,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광양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 과를 방문하거나 유선(061-797-3292)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상담실은 ▲자동차세 과세근거와 세액 산출 상담 ▲가상계좌·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납부 등을 안내한다. 광양시는 앞으로 7월,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도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2건 안건 처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7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부터 15일까지 각 위원회별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 및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철저 △순세계임여금 최소화 및 분기별 의회 보고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 △보조금 반납금 및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이월사업 유구제적 명시 △올바른 성과보고서 작성 △추경예산 및 정리추경 효과적 활용 △내부유보금 관리 철저 등 8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등 결실아동 급식지원 급식카드 도입과 적극적인 징수행정에 대한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의 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순천시 수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개정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담양,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 최종 선정

무정면 봉안지구 돈사와 주거지 내 축사·빈집 등 정비... 약취 민원 해결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군 무정면 봉안지구로 무정면사무소, 무정농협 등 지역여점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유

해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돈사의 경우 환경오염과 마을 경관 훼손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돈사는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약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운영 반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화재로 시설과 잔재가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돈사 기준 반경 500m 이내에 천연기념물 및 지역여점 시설이 위치해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돈사의 약취, 환경오염 문제 등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무정면 봉안지구 유휴시설을 정비해 농촌을 살터이자 일터, 쉼터로 되살리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총사업비 101억 원(국비 50.5지방비 50.5)을 투자해 돈사 및 주거지 내 축사, 빈집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병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약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빈집을 정비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순채 기자

목포시내버스 7월 이후에도 정상 운행한다

직영 공영제·노선입찰형 준공영제 혼합 추진 감정평가 선정 7월 말까지 노선권 평가 완료

목포시가 오는 7월 이후에도 시내버스를 정상운영하고, 직영 공영제와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혼합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6일 시청에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목포시 시내버스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먼저 "시내버스로 불편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시정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전한다"면서 "버스회사와 수차례 논의해 버스 정상운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도 시내버스가 정상운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목포시내버스 운영회

사인 태원·유진운수가 만성 저차들 이유로 오는 6월말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7월 이후 사업포기를 공식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는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시내버스 안정화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버스회사 소유의 노선권 공영화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체계 개편 ▲경쟁과 균형을 이룬 운영체계 확립 ▲도시·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 구축 등이다. 박 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선권의 공영화 필수적이며, 시내버스의 공공성·안정성·시급성을 감안하면 사업

의 양도·양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선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시, 시의회, 버스회사가 각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7월 말까지 노선권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차량 및 CNG 충전소 등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유휴자산 평가를 진행해 순차적으로 시내버스 공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해 "연구 용역의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직영 공영제와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를 결합한 혼합형 운영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7월부터 시민 공론화를 진행해 노선권 공영화, 노선체계 개편, 운영체계 확립 등 3개의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형 ESG "주민 주도로, 주민 스스로" 확산

향산들녘참여농조합·자원순환연구회 공모 선정, 참여형 사업 추진

해남군의 해남형 ESG가 주민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실천과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2023년 해남형 ESG 실천 주민 공모를 실시, 관내 2개 단체를 선정하고 지난 16일 협약을 체결했다. 해남형 ESG 실천 주민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 향산들녘참여농조합법인(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유해지 정화작물 식재, 공동체환경 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과제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간척지 피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간척지 농지를 임대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의 특성에 맞춰 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또한 버려지는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 업사이클링 활동 및 자원순환을 연구하는 해남자원순환연구회에서는 생태환경 기획 강연, 주민참여 자원순환 작품 전시회, 내가 살아갈 미래의 지구 그림 전시회를 추진하게 된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윤리경영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형의 실천과제를 통해 법근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연초부터 해남형 ESG 실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월별 미션, ESG 착한여행, 사랑의 걷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ESG 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해남형 ESG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ESG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 특히 주의

광양시는 전남도내 서해안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5~6월경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 발생하는 3급 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에 의한 급성패혈증을 말하며, 주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에 바닷물이 접촉했을 경우 감염된다. 보통 16~24시간의 잠복기를 가지며 이후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발생 후 24시간 내 하지부종, 수포, 폐양, 폐사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치사율이 50% 내외에 달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하기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광, 총무훈련 실시 19~22일까지 4일간

영광군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총무훈련'을 실시한다. 총무훈련은 비상대비 계획인 총무실시계획의 실효성 검증에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3년 주기 시·도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며, 차량·건설기계·기술인력 등의 자원동원 훈련과 피해복구 훈련 등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축소 시행 되었던 총무훈련을 정상화하여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통합 상황조치 연습, 국가중요시설인 한빛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 민방공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현 국면에서는 공무원들의 비상시 임무수행 능력과 주민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총무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을 점검하고, 민·관·군·경 합동 훈련을 통해 비상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